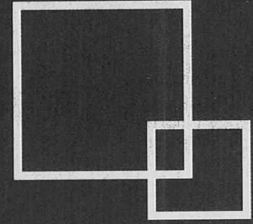


인쇄공정 통합솔루션 마이크로켄의 'Pony-23SC'



지난 10월 26일, '2006 신소프트웨어(SW)상품 대상' 시상식에서 마이크로켄(회장 조병우, www.microchemsys.co.kr)의 인쇄공정 통합관리 솔루션인 'Pony-23SC'가 임베디드SW 대상을 수상했다.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Pony-23SC'

인쇄공정 통합관리 솔루션인 'Pony-23SC'는 인쇄와 관련된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용지 계수기, 잉크 계량기, 전표자동 발행, 관리시스템 등 크게 4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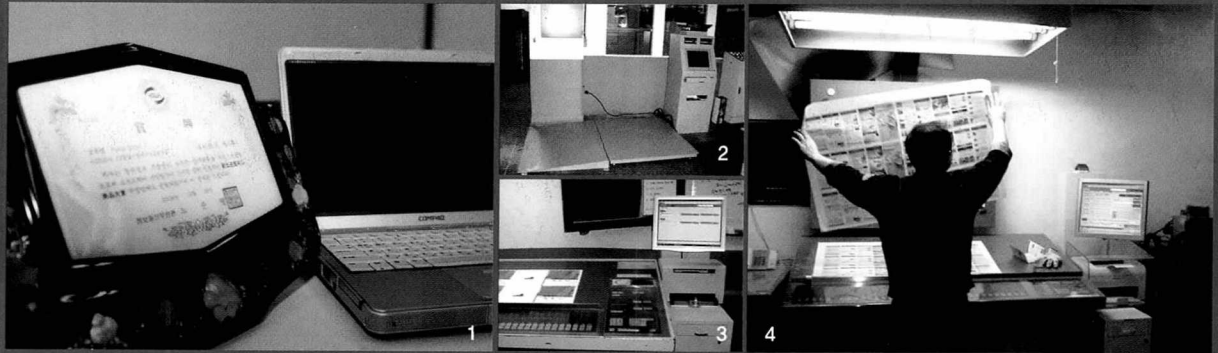
'Pony-23SC'의 '용지 계수기' 기능을 이용하면 오프셋인쇄에서는 낱장의 용지 또는 인쇄 매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윤전인쇄에는 두루마리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손지 발생량을 점검해 기록 통계할 수 있게 된다. 인쇄 완료된 용지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원가 절감과 불필요한 중복 작업을 피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인쇄기에도 자체적으로 계수기가 부착된 경우가 있었지만, 파지를 생각하지 않은 대략적인 숫자에 불과해 후가공 단계에서 인쇄지가 모자라거나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Pony-23SC'는 이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작업단가를 줄일 수 있고, 작업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전표가 자동으로 발행돼 작업자의 번거로움을 한층 줄여주었고, 인쇄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일의 양을 인쇄기별로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인쇄기와 후가공 기기와 연결돼 사용가능

'Pony-23SC'의 경우에는 인쇄기종과 버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이텔베르그, 고모리, 미쓰비시 등 국내 소개된 대부분의 인쇄기 메이커들의 제품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만들어진 시스템인 만큼 각각의 인쇄기에서 내보내는 신호를 잡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인쇄기계에 연결하는 부분은 급지부의 정지 회로와 딜리버리의 센서부분으로 고가의 인쇄기기에 무리를 주지도 않는다. 설치시간도 짧아 1시간 내외에 설치가 가능하고, 담당자들도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전산 장애 등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Pony-23SC'는 모든 인쇄기(클라이언트)가 관리자(서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인쇄기 기장은 관리자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음 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착오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장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부여 받아, 자신의 출근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 관리자입장에서는 인력관리에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



1 마이크로캠은 Pony-23SC로 지난달 2006신소프트웨어상품 대상을 수상했으며, 함께 특허도 획득했다. 2 Pony-23SC 계측기, 종이 한장 무게를 계산해 전체 페이지를 측정한다 3 Pony-23SC 설치 완료후 모습 4 설치작동중인 모습 5 Pony-23SC프로그램. 실시간으로 작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월별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과 연결돼 새로운 인쇄 서비스 가능

'Pony-23SC'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작업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관리자, 작업자, 거래처 각각의 이익과 상호간의 신뢰를 얻게 된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시간, 종이, 잉크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효과적인 작업 계획의 수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든 작업이 자료화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 통계를 뽑아, 다음달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작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번거로운 종이 서류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 상에서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지시에 따라 진행하면, 번거로운 일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인쇄기가 작동되는 동안, 인쇄품질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쇄공정이 끝난 이후에는 상황전표가 자동으로 출력돼 편리하다. 기장은 이전 작업의 상황을 확인하고, 바로 다음 작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컴퓨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거래처의 입장에서서는 무엇보다도 작업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상황이 파악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상황의 공개 여부에 따라, 지금 의뢰한 작업이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바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막연히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특허획득, 본격적인 영업 시작

'Pony-23SC'의 제작업체인 마이크로캠은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지난10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비슷한 제품들이 많았지만, 계측기와 인쇄공정, 작업관리를 통합하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오프셋 매엽 인쇄용 'Pony-23SC', 인쇄물 계수 검사장치 'Pony-21DS', 오프셋 윤전용 'Pony-21W', 제본용 'Pony-21BB' 등이 그것이다. 가격이 대당 2천만원 정도여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교학사, 진흥문화, 대한교과서, BGI 등 인쇄환경의 변화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기업들은 벌써 이를 도입해 자신들의 업체에 맞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김정삼 기자 sang@print.or.kr